

몰래카메라는 원본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자체를 뜻하지만 여러명이 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모습을 몰래 찍는 장난이라는 의미와 범죄성 도촬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도촬의 의미는 범죄성 도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촬은 도둑 촬영의 약칭으로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허락 없이 타인의 행동 또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이는 성범죄에 성립이 되며 그 대상과 방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여겨진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 갈수록 지능화

하지만 도촬 범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능화 되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해당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해임되는가 하면, 20대 공무원은 직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찍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교직원에게 발각됐다.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 속에는

전 매 광 장

대유민
전남청소년문화센터장



몰카와 도촬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4,858건에 달하며 도촬 등 성범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를 떠나 스마트폰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성폭력 범죄처벌법상 카메라를 이용 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도촬을 하는 행위에 있어 얻어낸 촬영물을 판매, 임대, 반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정보통신을 통한 성적적 이용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최근 실제 도촬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면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도촬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도촬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고 나왔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도촬죄의 성립요건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락 없이 촬영했을 때와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몰래 촬영한 경우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촬영을 한 경우인데 이제 가지 성립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도촬죄가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 부위 즉,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나 아니냐에 따라 그리고 특정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 촬영을 했는지에 따라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인지 감수성 키워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평생 괴롭힘에 시달릴 도촬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다행이 도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처벌 방지를 위해서는 도촬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며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법적 규제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 촬영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 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과 검거를 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발견한다면 즉시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자.

사 설

추석연휴 이동 자제 하자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풍속도로 바뀌고 있다. 부모는 멀리 있는 자녀들의 귀성을 만류하고 있고, 온 가족이 모여 하던 발초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 실내 봉안 시설 예약제 운영, 온라인 성묘 권장, 귀성·귀경 열차와 고속버스 좌석 50% 줄여 운행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고향 방문 등 이동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대면 접촉은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결국 국민 각자가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그나마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동이 많은 연휴를 지나면 재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의 황금연휴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한 달 반가량이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국민 일일 이동량은 급속히 늘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 자릿수였던 확진자가 5월 8일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사흘을 쉰 15~17일 연휴 때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은 물론 전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 추석 고향 방문조차 자제하며 지열하게 싸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럴 때 국민이 나서 '제한'을 넘어 '자제'로 가는 것이 맞다. 가족의 건강은 부모·자식할 것 없이 모두의 바램이다. 코로나시대 추석연휴 이동자제는 이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 광주는 왜 안잡히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한결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6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 광주에선 하루에 10명선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방역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3일부터는 6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비해 광주가 뚜렷하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7~8일 각각 78명, 98명을 나타내며 이를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졌더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광주의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이 걱정이다. 지난 9일 광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공개된 확진자를 포함, 하루에만

17명이 발생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밥집 관련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이곳에서만 23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으니 심각하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강화된 방역 조치인 이른바 '2.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3일까지 이미 연장한 바 있다. 우리 광주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입장을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는 것이 요지일 터이다.

전국적으로는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광주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껌껌이 감염 등 확진자 감소 추세를 더디게 하는 위험요인이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당국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확산세를 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될 일이다.

에세이



정태현
수필가

시간의 추(錘)

라 차를 몰고 그 장례식장에 갔었다. 그 래, 망자의 영정을 등 뒤에 두고 다른 문상객들과 혼연스럽게 이야기까지 나누지 않았던가. 얼크러진 시간 속에 의식이 때물되었던 것일까.

뿐인가. 바람 부는 어느 날이었다. 한길 건물목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지금이 몇 시인지, 며칠인지, 어느 계절인지, 순간 시간이 뒤엎겨버렸다. 요일조차 분별할 수가 없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우두망찰하고 서 있었다. 게다가 뜬금없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까지 주르륵 흘렸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정제불명의 눈물이었다. 우세스러워 건물목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개 들어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간다. 우리 시간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 의식보다 무변광대하다. 그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라는 범위에 속해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과연 시간 안에 머무는 걸까, 시간 밖에서 존재하는 걸까.

어느 수도원의 전설 같은 이야기다. 한 젊은 수도승이 낮에 일을 마치고 수도원 정원에서 걷고 있었다.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하듯 삼아

묵상 중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그는 근처 숲속을 걸으며 생각에 깊게 잠기느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걸었다. 이윽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서둘러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로 향하는데 이미 낮선 수도승이 앉아 있었다. 주위에 늘어난 수도승들 역시 아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이름을 말하자, 지난 300년 동안 그 어떤 수도승도 여기에선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단다.

그 이유는 옛날 그 이름으로 불렸던 수도승이 숲속에서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 수도승이 수도원장의 이름과 자신이 수도원에 입회한 때를 말하자, 그들은 수도원 연대기를 꺼내보고는 300년 전에 사라졌던 수도승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젊은 수도승은 깜짝 놀랐고 그 순간, 그의 머리칼은 백발이 되고 말았다.

시간은 무의식이나 가장 내적인 곳에서 작용할 터이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지금은 어떻게 인식하며, 앞으로는 어찌 대응해야 할까. 현재는 영혼의 경험이고, 과거는 영혼 속에 담긴 회상의 이미지이며, 미래는 영혼의 기대 안에서만 이루어질 텐데 말이다.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다. 누구든 시간의 바다 위에 일엽편주로 떠 있다. 하루가 지루하다고 투덜대는 자에게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애타는 이에게도 지나간 시간은 다신 되돌아오지 않는다. 무작정 시간의 꿈꾸니만 따라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마련이다. 짧은 인생, 시간의 낭비로 더 짧아져서야 되겠는가. 비록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일지언정 현재의 시간이 녹슬지 않게 버려 줄 일이다.

우리가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간뿐이다. 신분이 높고 명성이 자자하며 부요한 자에게도, 지위가 낮고 보잘 것 없으며 가진 것이 적은 이에게도 분명 시간은 있다.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시간은 바뀔 뿐이지 멈추거나 기다려 주질 않는다. 시간이 오가며 하는 말을 침묵 중에 귀 기울여 볼 일이다. 생을 관통하며 쉽 없이 오고 가는, 내 시간은 과연 안녕하신가.

기고



박송이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 관심 가져주길

최근 발생하는 화재사고에서 대규모인 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지난 2014년 담양펜션 화재에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이어 올해는 고흥 윤호21병원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들 두 화재사고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화재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 화재에

대한 대비도 무방비 상태였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속 재해이다.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 등 복합 건축물 8개 이상 대상물이다.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 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국민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키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절실

기저수첩

광주·전남의 인구감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오는 2047년 고령인구 비율이 46.8%를 차지, 전남인구 절반이 고령화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100대 통계지표로 본 광주·전남 변화상을 살펴보면 인구절벽과 고령화가 여실히 느껴진다. 광주·전남지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 고령 인구 비율은 2020년 13.7%로 상승했으며, 향후 2028년 2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은 올해 23.1% 상승, 향후 2047년에는 46.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 출생아수는 저조하다. 지난해에는 8,364명으로 1986년 통계작성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광주는 물론 전남 자치단체에서도 출생아수를 늘리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그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등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소규모 직장 인에게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다.

초혼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점 또한 어느정도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 평균 초혼연령은 2019년 남성 33.4세, 여성



이나라
경제부 차장대우

30.65세, 전남은 2019년 남성 33.42세로 각각 높아졌다. 불경기 속 취업의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등 N포세대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길어진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를 감안해 육아휴직을 세 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민간 기업에서 출생아수를 늘리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그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등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소규모 직장 인에게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다.

초혼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점 또한 어느정도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 평균 초혼연령은 2019년 남성 33.4세, 여성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기시제보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32	• TEL (062) 720-1050-54
사 회 부 (062) 720-1050-54	전 산 실 (062) 720-1033	• 세화부 010-6633-8826
사 회 2 부 (062) 720-1044	월 간 국 (062) 720-1006-07	• FAX (062) 720-1080-81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 리 국 (062) 720-1012	• E-mail jndn@chol.com
문 화 부 (062) 720-1071	판 매 국 (062) 720-1004	광고문의
체 육 부 (062) 720-1041	사 업 국 (062) 720-1011,1099	• TEL (062) 720-1016-17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19	• FAX (062) 720-1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주 주:한화증권부사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